

서윤영의 집과 사람



월세방에 살아도 차는 외제차

‘집은 한 칸짜리 월세방에 살아도 차는 외제차, 점심은 김밥에 라면으로 때워도 그 손에 들린 것은 커피 전문점의 텀블러.’ 신문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요즘 어째서 이런 소비형태가 나타나는데일까.

집은 사고 팔 수 있는 재화 중에서 가장 비싼 것에 해당한다. 전국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85㎡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적게 잡아도 2~3억 원은 주어야 한다. 월급을 받아 1년에 천만 원씩 저축을 하고 그 일을 꼬박 20~30년을 해야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

소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런데 소유가 불가능한 재화에 대해서는 변형적인 소유형태가 나타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유 대신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크게 전세와 월세로 나뉘는데, 이 모두는 구매 대신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에 속한다.

한편, 임대 대신 공유의 형태도 있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가 많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1980~90년대 유행했던 콘도미니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당시는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여가 문화가 발달하던 시기였다. 1970년대 부유층에서 유행하던 별장을 1980년대 중산층이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여러 세대가 화원제로 별장을 공동 소유하여 일년 중 며칠을 교대로 사용하는 형식이었다.

최근에는 셰어 하우스(share house)라고 하여 혼자 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너 명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형태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침실은 각자 혼자 쓰되 거실과 주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 외에 세 번째 형태로 전용(轉用)이 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집이 아닌 것을 집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직후 ‘하꼬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상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하꼬’에 우리말 ‘방’이 합성된 것으로, 나무 상자로 열거설기 만든 집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도 비닐하우스 혹은 창고를 개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집이 아닌 것을 집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형태, 소유나 임대조차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변형된 형태라 하겠다. 미국에는 트러이나 버스를 개조하여 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TV나 인터넷으로 소개되는 장면을 보고 독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보다 저렴한 자동차를 집으로 개조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아울러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수성도시에서는 배를 집 삼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트러이나 배를 집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특유한 문화도 있다.

고시원 혹은 고시텔이 그것이다. 원래는 고시공부를 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청년들의 가장 저렴한 주거지가 되어버렸고, 또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기의 끝자락이던 1990년대에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오피스텔은 주택 분류상 집이 아닌 오피스, 즉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

소규모 개인창업과 벤처사업이 증가하던 당시 야근과 격무로 시달리는 사무환경에서 퇴근 대신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아파트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인기가 있었다. 청년층에게는 오피스텔에 사는 것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본래 집이 아닌 곳을 집 삼아 살아간다는 점에서 비닐하우스나 고시원과 다를 바 없는 전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외제자동차나 해외 명품구대 내지는 해외여행에 열중한다. 이 현상이 바로 ‘대체소비’다. 소유하고 싶은 재화가 너무 비싸 소유는 물론 임대, 공유조차 불가능하다면 아예 포기하고 대신 다른 곳에 소비를 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흔히 단칸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여 적금을 모아 전세로, 그 다음 내 집 마련으로 인생의 단계를 밟아 나가며, 자동차는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한 후에 장만하는 것이 수순인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원에 살면서도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에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나 집값이 비싼 현실이 버티고 있다.

이래도 저래도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집, 그레 집을 대신해 자동차와 해외여행, 명품구입으로 대표되는 대체소비로 돌아선 것이다. <건축칼럼리스트>

종교칼럼

선차(禪茶)의 향기를 듣는다



김석민 선종 보림사 주지

두 동국으로 간다라는 찬탄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시절인연이 이르지 못함을 알고 설악산 진전사에 은거하시며 염거 선사에게 법을 전하고 마침내 보조체증 이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융성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한국 선불교의 시작입니다. 보림사 차의 역사는 위와 같이 선불교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당 나라에 유행하던 차는 전차로 선사들이 귀국하면서 같이 들여왔던 것입니다.

한편, 체증선사의 창성탑비에는 우리나라 금석문 최초로 현안왕이 약과 차를 체증선사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구한 선과 차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마다 보림사에서선 선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는 수행자들에게 있어 떨어질 수 없는 유일한 벗입니다. 화두 참구의 치열함 속에서 상기를 다스리고 혼침(마음이 흐리멍덩해짐)을 깨우며 정진을 하게 합니다. 또한 할 때는 쉼에서 찾물을 따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차를 우려내어 향기를 들읍니다. 한편 색깔을 보면서 대상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목전에 현전(現傳)하는 역역(釋釋)한 성품을 반조(反照)하는 반야행(般若行)을 실천하면 바로 깨달음의 기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차일여(禪茶一如)의 경계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차인들은 차를 마시면서 반야행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도 시그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 차 한잔을 손에 쥐면 마치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듯 자연스럽게 이마 위에 정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차 한잔을 바르게 마시는 일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차의 성품이 곧 불성으로 한잔의 차는 곧 한 조각 성품의 나타남이며, 한 조각 성품은 한 잔의 차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함허득통선사는 성품과 차를 불이(不二)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은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체 대상을 불이의 관점에 놓고 끝없이 반야행을 실천하다가 보면 어느덧 깨침의 기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선원에서 보청으로 차를

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원에서는 요즈음 차를 멀리하고 오히려 커피가 유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차는 들뜬 심성을 가라앉히고 혼침을 벗어나게 하지만 커피는 오히려 진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감각을 자극하여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차인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차가 나오는 계절이어서 차 행사에 참여하고 만드느라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자칫 하면 차에 대한 욕심이 수행하는 마음을 놓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차를 손수 닦으면서 느끼는 것은 차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차는 뜨거운 가마솥에서 온전히 자신을 죽여 향기로운 몸으로 거듭나지만 아직도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싱그러운 차의 계절에 온전히 죽어 다시 살아가는 차처럼 대사대활(大死大活)의 경계를 획득하여 모든 이웃들의 갈등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윽한 차나 한 잔 올립니다.

기고

재난 구조, 실전경험 많은 소방 중심 재편해야



조재완 광주광역시 소방동우회장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숨이 막혀온다.

물이 차오르는 선실에서 헬기가 왔으니 곧 구조될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지푸라기 하나도 건네주지 못했던 것이다. 왜 못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한번도 제대로된 준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험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다. 해보지 않은 일을 잘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저런 수많은 때를 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말이다. 오로지 실전과 경험속에서만 매뉴얼은 의미가 있게 된다.

얼마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이번 재난대응의 총체적인 부실을 반성하고 해양경찰청 해체라는 초강수와 함께 총리실 산하에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각 행정부처가 관련된 대형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분명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유능한 현장인력이 있었음에도 지휘부의 인적구성이 현장경험이 없는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보

고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경험속에서 단련된 지휘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소방은 연간 270만건의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의 한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뉜 이원적 조직체계라고 볼 수 있다.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난 발생초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선결조건은 단일화된 조직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구축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담화에서 강조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대응조직의 일원화를 전제로 재구성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급박하게 전개되는 재난상황에서 정해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단련된 인력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판단 능력으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고 대피시키는 효과적인 지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책만으로는 배울 수 없고 오로지 탐과 피

와 눈물로 점철된 뼈아픈 경험에서만 체득되는 조직적인 능력이다.

이러한 단일한 틀내에서 조직적 대응 경험이 없이 유사시 필요에 의해 다른 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 또다른 상위조직을 지휘부로 구성하는 것도 옥상옥이 될 공산이 크다. 즉, 대응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저해한다.

오늘날은 재난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완벽한 예방대책을 세우기도 힘들뿐더러 최선의 대책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 대비하더라도 재난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직을 무한정 만든다는 것도 무모한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은 재난현장 대응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조직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책임과 역할을 소방이 할 수 있도록 현장소방인력과 재원 등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이라 할 것이다.

社說

새정치연합이 이반 자초한 무소속 돌풍

전남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거센 돌풍을 일으켰다. 22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8명이나 당선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식 구조를 타파한 것이다. 무소속 돌풍 뒤에는 현역 단체장들이 졸졸이 고배를 마시는 등 대폭적인 물갈이도 함께 현실화됐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목포와 순천, 광양시, 장성, 보성, 장흥, 영광, 신안군 등 8곳에 이른다. 따라서 여수, 나주, 장성, 영광 등 8곳의 현역 단체장이 낙선했으며,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은 3개 지역과 현역 불출마 2곳까지 포함하면 도내 22개 시군 중 13곳에서 단체장 얼굴이 바뀌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새정치연합 공천=당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뒷받에 안주하던 새정치연합이 무소속 돌풍에 휩쓸리면서 그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처지가 됐

다. 이는 공천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무원칙과 내부 반목, 후유증 등으로 인해 민심 이반현상이 나타난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지역마다 원칙이 다르고, 전략공천을 했다가 반복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에 탈당을 강행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민심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또한 현역 단체장들이 대거 낙마한 것도 자질부족과 실정(失政)에 대한 지역민의 변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민심의 선택이 보여준 매서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패배를 자초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당선자들 역시 민심에 순응하지 않고, 초심을 저버린다면 지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처럼 4년 뒤의 준엄한 심판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가다.

진보 교육감들, 당면한 교육현실 직시하라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 충격이 진보 교육감시대를 몰고 온 것이다. 광주·전남 역시 현직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 면에서 지난 4년의 공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의 지원 아래 출범한 민선 1기 광주·전남 교육감 체제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왔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이는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업과 인사 등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추진하며 교육계 새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명분에 치우치거나 진영논리에 매몰돼 빚어진 갈등 또한 적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기 민선체제 출범부터 이른바 측근 챙기기에 따른 코드인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한때 전국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광주는 각종 평가에

서 하향 추이를 보였다. 학생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고교 자율학습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들의 푸념이 나오게 했다. 교육부와 의 뜻은 마찰도 피할 수 없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2세 교육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빈약한 여건에서 자녀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절박하다. 교육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큰 만큼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시·도 교육감에게 바라는 바도 많다.

따라서 장휘구·장만재 당선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교육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노출된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동시에 다른 쪽의 주장을 포용해 지역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작은 도서관

‘보르헤스는 곧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타가 인정했던 소설가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보르헤스(1899~1986)다. 그는 18년간 국립도서관장으로 일했다.

한때 책을 권장하는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처지였다. 30대부터 약시(弱視) 때문에 고통을 받아 왔고 권장 재직시에는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80만 권의 책과 아들을 동시에 가져다 준 신의 절묘한 아이러니”라고

트를 진행했다. 첫 결과물이 고(故)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었다. 언젠가 순천 도서관을 찾았다.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뒤 몇 년간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그 지역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찾곤 한다. 충북 제천과 제주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 등이 기억에 남는다.

지난주 취재했던 광주시 남구 노대동 ‘책 문화 공간 봄 :’은 오랜만에 만나는, 꼭 다시 보고 싶은 도서관이었다. 3500여 권을 갖춘 작은 도서관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가득했다. 무엇보다

다 ‘봄 :’은 커피숍과 지를 얼마나 인터넷이했을까 싶다.

그는 언제나 책과 함께였고 시내에 있는 ‘피그말리온’은 그의 단골 책방이었다. 그곳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16세 소년은 “나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겠냐”는 보르헤스의 제안을 받고 그를 위해 책을 읽어 주었다. 1964년부터 1989년까지 그의 사제에서 무려 20여 년간이나. 그 소년인 바로 ‘밤의 도서관’ ‘독서의 역사’로 유명한 알베르트 망구엘이다.

2003년 MBC ‘느낌표’와 시민단체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직을 무한정 만든다는 것도 무모한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은 재난현장 대응조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조직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책임과 역할을 소방이 할 수 있도록 현장소방인력과 재원 등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이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건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